

“주 52시간 준비 여력 없어, 미뤄달라”

중기중앙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분야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자리했으며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과 ▲고용노동부 인사정 차관도 함께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였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3개월 후에 미추할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 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축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시

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관련 대응 설명회 열어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25일 7층 회의실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설명회에 노

동법 전문 강사인 민경록, 강호석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2019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유연 근무제 주요내용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앞으로도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기

업들의 단면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널리 알린다

전북중기청, 백년가게 현판식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24일과 25일 2019년 2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선정된 전북지역 4곳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백년가게 선정업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성공모델로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날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관계기관과 단체가 참석하여 업체대표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현장소통 간담회도 진행했다.

24일은 녹두삼계탕으로 유명한 군산의 '운정식당'과 짬뽕전문점으로 전국 100대 음식책자에 등재된 군산의 명물 '쌍용반점'의 현판식을 진행했다. 또한, 25일 현판식을 진행한 남원

소재의 '신촌매운탕'은 남원 요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오래된 철재방상으로 고객의 추억을 되살려주어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며, '3대원조할매추어탕'은 3대가 가업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남원 광한루 일원에서 자연산 미꾸라지와 직접 담근 장류, 그라비올라를 이용한 기능성 추어탕을 특허등록하여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혁신역량 강화 교육, 보증우대(100% 보증, 수수료 0.8% 고정), 금리우대(0.4%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의 백년가게는 19곳이 선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 서울에 이어 3번째로 전국 대비(210개 업체) 9%를 점유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농어촌공 전주완주읍실지사, 청렴 TALK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 전주완주읍실지사(지사장 심덕섭)는 지난 24일 조익문 상임감사가 방문한 가운데 주요업무 현황 및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TALK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조 감사는 “청렴은 소극적 의미의 청렴을 생활화하고, 고객에게 친절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라며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서장 및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운동

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주완주읍실지사는 시공회사 현장대리인과 상생하는 청렴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모바일과 문자 병행 운영을 통한 소통창구인 '시공회사와 함께하는 청렴 협동조합'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안전경영 관련 생명과 안전이 제1의 가치이므로 공사에서도 재해와 시방민안을 공공기관 중 하위권 수준으로 하자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오늘 바이오차 국제심포지엄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바이오차 응용기술을 확립하고자 오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바이오차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바이오차(Biochar)는 산소 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시켜 생산하는 고체 물질로, 대기 중 탄소를 토양에 격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매스인 식물과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유기성 생물체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업에서 바이오차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를 발표하고,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해 농업·농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기술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일정은 '농업에서 바이오차 활용'을 주제로 △바이오차가 농업환

경에 미치는 영향 △SMART 바이오차 기술 △논적용 바이오차 펠릿의 탄소 격리 효과 등이 발표된다.

두 번째 일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차 활용'을 주제로 △논적용 바이오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중국의 바이오차가 벼 재배 시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 번째 일정은 '축산분야에서 바이오차 활용'을 주제로 △바이오차 혼용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뇨퇴비 혼용 바이오차 펠릿의 악취 평가 △바이오차의 양돈 돈사의 악취 제거 기술 등이 발표된다.

끝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후 국립농업과학원 내의 '농에서 바이오차 펠릿 활용효과' 실험 포장을 둘러본 후 김제과 고창에 위치한 바이오차 생산 공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25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19 웰컴 투 코리아(외국인 근로자 가족 한국초청)' 축하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했다.

타국생활의 어려움 잠시 잊고 특별한 추억을

창립 50주년 전북은행, '웰컴 투 코리아' 축하행사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5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19 웰컴 투 코리아(외국인 근로자 가족 한국초청)' 축하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재)전북은행장화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사면 소카 노무관, 주한 미얀마

대사관 민 윈 틴 노무관, 주한 네팔 대사관 달리 람 반스톨라 노무관, 외국인 근로자 67명, 외국인 우수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든 타국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문화

를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축하행사는 전북은행 사회공헌활동 영상시청, 초청가족 왕복항공권 및 여행경비 증서 전달, 선물 전달, 외국인 우수대학생 장학금전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행사진행을 위해 전북은행 수원외국인금융센터 후어쑤페이 계약장 등이 동시통역을 맡았다.

이번에 초청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외국인 근로자 67명 총 24명

은 전북은행 본점과 전주한옥마을 일정을 포함해 수원 및 서울지역 주요문화재 및 한국문화투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및 숙소방문 등 총 3박 5일 동안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며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